

# 중국 연구와 문화 코드

2012. 02.

이육연  
(서강대 중국문화과 교수)

## **차례**

- 1. 중국 연구에서 문화 코드의 의미**
- 2. 한국인의 중국 이해**
- 3.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 중국 문화**

# **1. 중국 연구에서 문화 코드의 의미**

# 기존 중국 연구의 현황

중국을 보는 한국의 시각이 없다  
(미국의 시각, 일본의 시각 보는 중국)

한국의 중국학은 민족주의 학이다

한국의 중국학은 식민과  
냉전의 틀에 갇혀 있다

오해와 편견 속에서 보고 싶은 것  
만 본다

중국은 알지만 중국인은 모른다

# 중국 연구에서 문화 코드가 갖는 의미

## A. 문화 : 중국 국가 정체성의 핵심

중국 : 문화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공동체, 문명국가

## B. 문화를 통한 국가 정체성의 재구성

- 5.4 신문화운동 - 문화대혁명 - 1980년대 신계몽주의 운동 - 공자 부활 등의 전통문화부활 운동
- 문화의 재구성, 갱신 - 국가의 재구성, 갱신의 패턴

## C.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특징을 이해/인정하는 것

## D. 중국인에 대한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 중국인의 의식과 내면에 대한 이해


## E. 중국에 대한 구조적 이해의 필요

## F. 중국 문화의 최근 흐름을 파악하는 것 :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 현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문화적 현지화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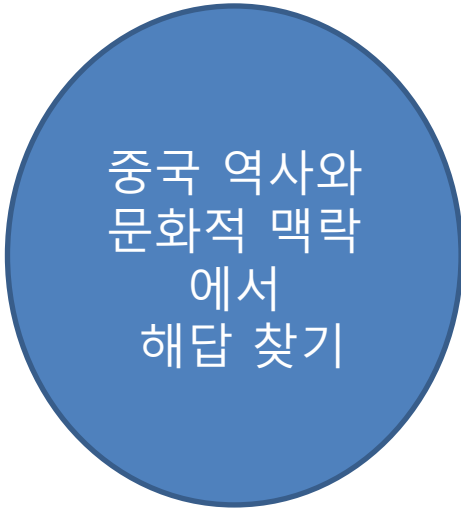
## G. 중국의 새로운 국가 전략 : '문화 강국' 건설

# 중국 연구가 직면한 곤혹스런 질문들

- A. 중국은 왜 소련처럼 분열하지 않는가? 중국 공산당은 왜 망하지 않는가?
- B. 중국에서는 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서구식의 민주주의는 가능/불가능한가?
- C. 중국 기업에는 CEO형이 적합한가? 링다오(領導)가 적합한가?
- D. 중국인들은 왜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가?



서구 근대를  
기준으로 한  
해답 찾기



중국 역사와  
문화적 맥락  
에서  
해답 찾기

# 중국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질문들

- A. 중국이 근대화를 완성하면 서구식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이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먼저 서구식 국가가 되어야 한다?
- B. 중국은 서구와 같은 국민국가인가? 유럽과 중국의 전근대 사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 C. 국가와 정치는 중국과 서구에서 같은 개념인가?
- D. 지식인의 정체성과 역할은 중국과 서구에서 동일하게 규정되는가?
- E.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보편 원칙을 실현하는 정당인가? 중국 공산당과 전통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중국이 결국 서구 모델을 따를 것이고, 서구 모델을 따르는 조건 속에서만 중국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편 진리인가? 서구중심주의적 편견인가?

문명국가 중국, 단일성 지향 의식, 국가의 일원인 엘리트, 민족주의 정당

## 2. 한국인의 중국 이해



**한국인은 중국인을 잘 아는가?**



# 왜 한국인은 중국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유교문화권, 동문동종(同文同種)

## 한국인이 잘 아는 중국, 중국인은?

공자시대와 마오 시대의 중국, 중국인 ?

전통시대의 오랜 교류/현대의 단절과 적대

##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인?(1)

“현지 법인 사장이 형광등을 사기 위해 동네 가게에 갔다. 얼마냐고 물어보니 주인이 16원이라고 했다. 다시 조선족 직원을 시켜 형광등을 사오라고 하였더니 14원에 사왔다. 산동성 출신 종업원을 시켰더니 10원에 사왔다. 마지막으로 토박이 공장직원을 시켰더니 8원에 사왔다. 현지법인 사장은 처음에는 조선족을 의심했다. 착복한 것이 아닌가 하고”(산동성 진출 한 한국 기업인)”

##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인?(2)

중국에서 사업하던 분 말씀에 따르면. 거래처 관리인이 칼에 찔렸다고 한다. 그날 일하다 잘못된 걸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고 구박을 좀 했는데, 그 중국인 직원의 복수였다고 한다

- 네이버 한 블로그에서

##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인?(3)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인, 중국인**

**전통과 식민, 냉전 시대에 형성된  
오해와 편견의 상호 인식**



# 한국인과 중국인 : 같으면서도 다르다

## A. 동일한 유교 사회 : 가국(家國)일체 전통, 가족중심주의, 집단주의 사회

## B. 비슷한 문화 전통의 공유

- 폐백 때 신혼부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지는 풍속 : 棗=早(zao), 栗=立(li) : 早立
- 결혼 때 하얀 것, 긴 것, 단 것을 먹는 것 : 白, 長, 甜

## C. 전통사회와 현대사의 차이 : 존댓말이 없는 중국어, 마오쩌둥 사회주의 시대의 경험

- 존댓말이 없는 중국어
- 마오쩌둥 사회주의 역사의 경험 : 전통 타파와 아버지 죽이기
- 나이, 직책에 따른 수직 문화의 차이

## D. 화궈(火锅) 문화와 찌개문화의 차이

- 같은 문화적 유래
- 중국 : 개인주의+집단주의
- 한국 : 집단주의

# 같으면서도 다른 한국인과 중국인

한중 대학생 1,500명 대상 설문

	한국학생	중국학생
혼자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무렇지도 않다 : 14% 차라리 군것질로 때우겠다 : 35%	아무렇지도 않다 : 73%
장학금 금액이 일정하다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는가?	적게 주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다 : 56%	우수한 소수에게 집중 적으로 주라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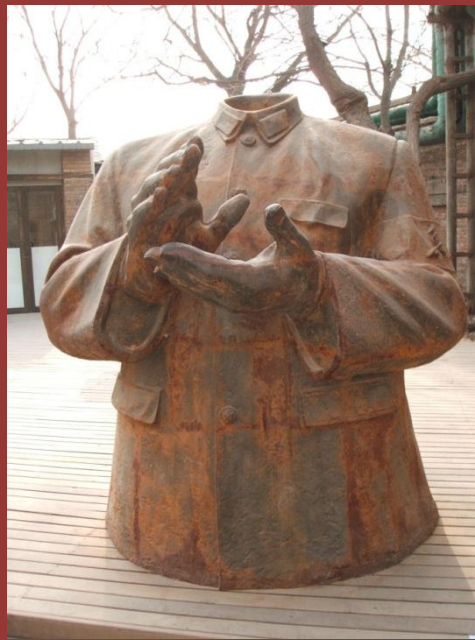
# 한국인과 중국인은 서로를 어떻게 보는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국, 중국인	중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한국인
경멸과 두려움	경멸과 존경
낙후, 더러움, 일당독재, 비민주, 거짓말	미 제국주의 식민지, 문화속국
경제대국, 패권, 중화주의 본질적인 문제아이자	애국심, 전통+현대화, 졸부, 인조미인, 한류
중국>한국>일본	중국>한국>일본
미국>일본>한국>중국	중국>일본>한국
한국? 중국	중국 ? 한국



전통과 식민, 냉전 시대에 형성된 상호 편견과 오해의 과거 역사  
국가와 언론에 의한 상호 기억에서 개인 기억으로 변화 하는 중

### 3.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 중국문화



# 근대 초기 중국인의 의식

- A. 아편전쟁(1840) 이후의 위기 : '5천년 만의 대변국(大變局) - 李鴻章
- B. 문명사적 위기감 : 중화문명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 전혀 이질적인 타자 서양
- C. 낙후감과 굴욕의식과 망국멸종의 위기감 : 7000년 문화, 5000년 문명, 100년 굴욕  
- 중국인이라는 이름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 (魯迅)
- D. 반전통주의, 전면적 현대화(서구화) : 중국/서구의 이분법적 사고
  - '打倒孔家店' 운동, 신문화운동
  - 유교 = 식인('狂人日記')
  - '가'(家)의 해체와 파괴 : 巴金의 소설 '家'

#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마오쩌둥 시대 중국인의 의식

- A. 제3의 문명으로서의 사회주의의 매력 : 전통도 아니고 서구 제국주의 문명도 아닌 것의 매력
- B. 민족주의 운동으로서의 중국 사회주의 운동과 마오쩌둥 사상
  - '中国人民从此站起来了'
- C. 문화적 차원에서 본 문화대혁명의 의미
  - '아비 타도 하기' : 선생, 당권파, 기성세대 등의 타도
  - '영혼에 접촉하는 혁명'
  - 인간 개조 운동 : 교육과 비판을 통한 사상 개조 - 인간 개조 - 새로운 문화 - 새로운 국가
- D. 국가 - '단위' 시스템의 정착 : 평균주의 시대 - 大锅饭
- E. '세계 혁명의 선봉'이라는 자부심
- F. 매매혼, 마약, 성매매, 전당포, 도박이 없던 시대 - 농민의 시대, 여성해방, 무상의료

# 1980년대 개혁개방 시대의 중국인의 의식

A. '중국은 아직도 봉건시대이다' : 마오 시대는 '사회주의 옷을 걸친 봉건주의시대였다'

B. 새로운 낙후감과 위기감 : '구적'(球籍) 박탈의 위기감

C. 현대화, 서구화에 대한 매진

- 민족 허무주의
- '달도 중국의 달보다 미국의 달이 더 둥글다'

D. 반전통주의, 민족 허무주의

F. 돌아온 지식인의 시대

高考, 知青返城, 托福, 下海, 涉外婚姻

#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대의 중국인

## A. 고속 경제 성장, 정치적 안정

## B. 민족 자부심의 고양과 서구에 대한 인식 변화

- '천당으로 가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라'('北京人在纽约')

## C. 중국적인 것, 중화성(Chineseness, 中華性) 추구

- 중국에는 서구와 다른 무엇이 있다(제도와 사상, 관념, 가치관)
- 서구 근대 시스템이 꼭 우수한 것, 좋은 것,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ex: 민주선거제도, 다당제)
- 중국적인 것이 서구적인 것 보다 우월하다
- 중국적인 것이 새로운 문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爭'의 시대에서 '和'의 시대로)

## D. 공자와 유교, 전통에 대한 재발견

-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변화 : 혁명정당, 항일정당, 계급정당 → 민족문화계승, 수호자
- 전통문화의 기능 : 민족유대, 민족응집의 접착제 역할
- 공자와 유교문화, 전통문화를 통해 민족 융합, 민족 유대 추진 : 소수민족, 타이완, 해외 화교 사회 포함
- 전통문화의 기능 : 전통을 잃으면 12억이 흩어진다(李慎之)

## E. 낙후감, 민족 위기감에서 탈피함 – 민족적 자긍심, 자부심의 고양, 중화민족 부흥기

## F. 집단적, 민족적 정체성 추구 :

- 80년대 : 我是谁? 我就是我。
- 90년대 이후 : 我们是谁? 我们是中国人。

# 문화 흐름으로 본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 중국



# 여성의 지위와 성 역할의 변화



“中国女的爱军装，不爱化装”（毛泽东），무성(無性)의 시대 : 同志



# 여성의 지위와 성 역할의 변화



여성 호칭의 변화 : 同志 小姐 靚女(MM,恐龙)  
全职主妇, 二奶, 三陪, 一夜情, 中国式离婚

# 새로운 중국인의 등장 : '80后'

A. 1978년 한 자녀 낳기 산아제한 정책 이후 80년대에 출생한 세대

B. '獨生子女'. '小皇帝' '小太陽', '垮掉的一代' '幸運的一代' '最自私的一代'

C. 18-28세. 약 2억 명

D. 개혁개방 세대, 중국의 '신 인류'

- 기존 중국인과 전혀 다른 중국인 등장, Young Chinese, New Chinese

E. 성장 시기의 환경

- 천안문 사태 이후 애국주의 교육
- 중국위협론 등장과 중/서(미) 갈등 체험
- 시장경제 심화와 소비문화 확산
- 세계와 접촉하던 시대 호흡(与世界接轨的世代)
- 사이버 세대, 인터넷 세대
- 해외문화에 심취(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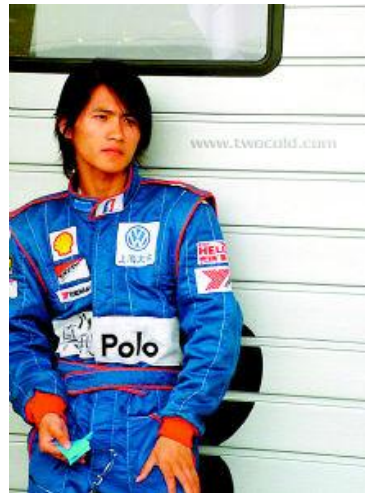
D. 사회진출 시기의 환경

- 단위(單位) 시스템의 해체
- 시장경제 속의 생존 경쟁 심화
- 취업난과 주택난
- 올림픽 개최 등, 중국 부흥기

# 새로운 청년세대의 의식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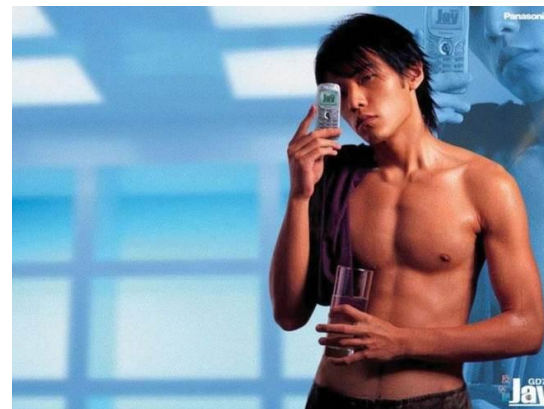
## A. 80后, 90后를 상징하는 키워드들

- 酷
- 房奴
- 蜗局
- 蚁族
- 山寨
- 囧
- 被 . . .
- 愤青
- 另类
- 微博
- 秀



## B. 80后, 90后的 우상들

- 韩寒
- 刘翔
- 李宇春
- 周杰伦
- 李娜



# 70后, 80后, 90后 비교

## A. 일

70 : 일 중독 80 : 야근 거부 90 : 출근 거부

## B. 상사가 옆에 서 있을 때

70 : 즉시 양보 80: 상하평등 90: 유아독존

## C. 경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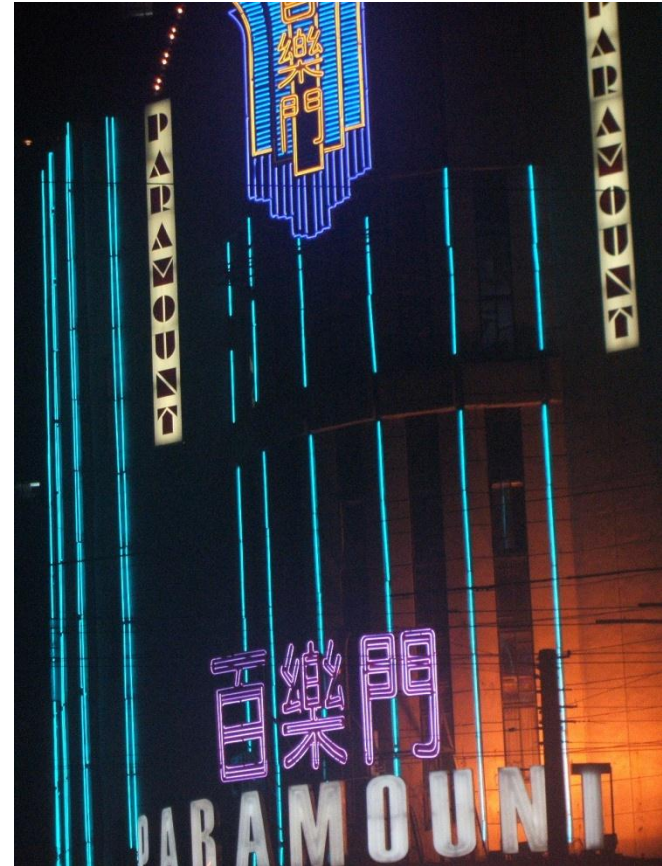
70 : 저축 80: 부채 90 :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

## D. 식사 할 때

70: 사장 옆 80: 최대한 사장 옆에 안 앉기, 90: '내가 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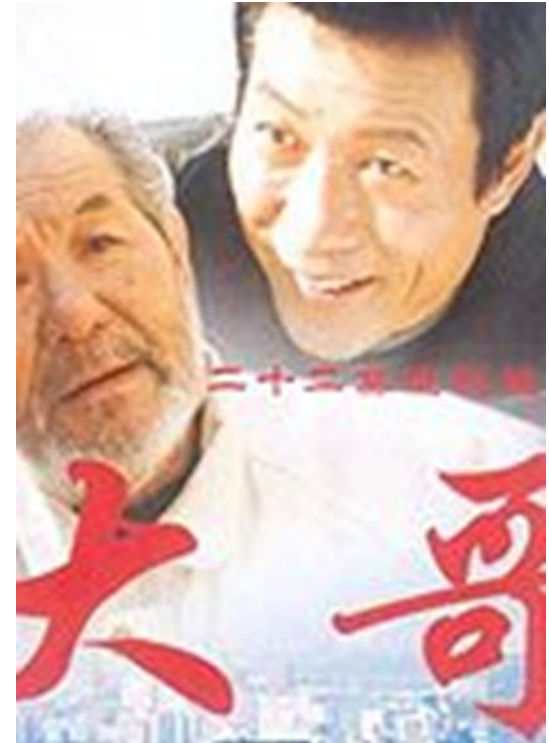


# 1930년대 상하이(老上海) 향수



혁명의 역사 지우기, 현대 중국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사고

# 전통 거리와 전통 가치관의 부활



传统街, 家の 부활, 아버지의 부활(다시 세우기)  
CCTV와 중국인들이 김수현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 아Q시대에서 許三觀 시대로



노예근성, 자고자대, 정신승리법의 아Q= 중국 농민, 중국 국민  
매혈로 아들을 살리는 아버지, 낙관과 새옹지마, 천명관의 소유자 허삼관



# 부활하는 공자





# 전통 복장의 부활



汉服, 旗袍

# 국가 문양(紋樣)의 변화



해바라기(毛시대) – 원자도(80년대) – 매듭(中國結, 90년대)

# 전통과 경영의 접목



중국식 인재관리 : CEO와 링다오(领导)  
경영인을 위한 고전 강의 : “三智道商学院（北大）”

##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 중국 지성의 쟁점



# Beijing Consensus ? Washington Consensus ?

중국 모델인가? 미국 모델인가?

중국은 중국의 세계와 중국의 Rule에 남을 것인가?  
중국은 Anglo-Saxon의 세계와 Rule에 편입될 것인가?

# 1. 세기 말 세기 초 중국의 신백화제방, 백가쟁명 시대

	내 용
주요 논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급진 vs 보수 논쟁</li><li>• 인문정신 논쟁</li><li>• Postmodernism과 Postcolonialism 논쟁</li><li>• 루쉰(魯迅, Lu Xun) 논쟁 : 노신 or 후스(胡適, Hu Shi)?</li><li>• 민족주의 논쟁</li><li>• 시민사회 논쟁</li><li>• 자유주의 vs 신좌파 논쟁</li><li>• 3차 개혁 개혁 논쟁(국유 기업 민영화)</li></ul>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992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채택으로 인한 중국 사회 변화 : 시장화</li><li>• 지식인 대오의 분화 : 1980년대 (신)계몽주의 대오의 분화</li><li>• 민간의 영역 확대 : 국가/공적 영역/시장</li><li>• 지식인의 발언 공간 확대 : 지면의 확대, 인터넷 등 발언 공간의 확대</li><li>• 지식인 대오의 재편 : 서구 지식 경험이 축적된 지식인 등장</li></ul>
지식인 지도의 재편	노좌파(old left)-신좌파(new left)-민족주의파-현실파(國情派)-자유주의파



# 자유주의와 신좌파 논쟁의 배경과 경과

## ○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이후 새로워지고 복잡해진 중국 현실에 대한 다양한 고민 제기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시장화가 중국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중국이 다시 서구의 식민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장화의 과실이 누구에게, 어느 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빈부격차의 확대 : 지니계수 0.28(1980)-0.38(1995)-0.458(2001)

농촌의 파산

사회주의 시대, 마오 시대에 대한 기억을 지닌 마지막 세대들의 시대

## ○ 시장화 이후 <중국/서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서구에 대한 낭만적 환상(?)에서 벗어남

경제 성장에 따른 민족적 자신감의 고취

서구 경험을 지닌 지식인들의 양적 확대 : 미국 유학 경험을 지닌 지식인의 등장

## ○ 논쟁의 경과

해외에서 시작하여 중국내로, 인문학자에서 시작하여 사회과학자로 확대. 신좌파의 시장화 비판으로 시작

90년대 전기 : 홍콩의 "21세기" 잡지 중심. 해외 중국인 학자 참여. 신좌파 내부 논쟁

90년대 후기 : 중국 국내 지식인들 참여 본격적인 논쟁. 신좌파와 자유주의 지식인들 사이의 전면적 논쟁

2004-2006 : 개혁개방 3차 논쟁, 국유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논쟁(浪咸平의 문제 제기)

### 3. 자유주의

	주요 내용
대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li><li>• 1980년대 (신)계몽주의의 진화 : 마오 시대의 '봉건주의+사회주의' 청산 위한 현대화 추구</li><li>• 전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물결</li><li>•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 시장화와 민주화의 괴리에 대한 불만</li><li>• Capitalism without democracy in China</li></ul>
사상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장화가 중국사회의 기본 제도와 성질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인식</li><li>• 1949년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 연속</li><li>• 마오 시대의 연속으로 단절이나 질적 변화 없다고 인식</li><li>• 중국 사회의 기본 문제는 사회주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봄</li><li>• 중국은 아직 시장사회 아니다</li><li>• 낡은 사회주의 시스템, 사회주의 권력 기제와 시장화의 결합으로 중국 현실의 문제가 야기 된다고 인식.</li><li>• 시장화를 통해 권력의 민주화, 정치의 민주화 추진.</li><li>• 시장을 왜곡시키고, 발전을 막고 있는 권력 기제 개혁 필요. 정치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인식</li></ul>
주요 인물	朱學勤(상해대 역사), 汪丁丁(북경대 경제연), 徐友漁(중국사과원, 철학), 許紀林(화동사범대, 역사) 등. 50대 초반 이상이 대부분



# 4. 신좌파

	주요 내용
대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성장기에 문혁 경험을 지닌 세대 : 60년대 생</li><li>• 80년대 신계몽주의를 경험한 세대 : 80's 학번</li><li>• 서구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남: 미국 유학 경험 세대</li><li>• 빠르게 시장화, 자본화 되는 현실에 대한 경계의식</li><li>• 시장화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 의식</li></ul>
사상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장화로 인해 중국 사회가 질적으로 바뀌었다</li><li>• 중국 현실 : 자본화된 현실이다</li><li>• 국유기업, GDP의 30%인 현실에서 중국문제는 이제 단순히 사회주의 문제 아니다</li><li>•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글로벌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다</li><li>• 공정한 시장, 민주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li><li>•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국가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li><li>• &lt;서구 경험 + 마오 시대 경험&gt;을 조합한 중국의 독자적 발전 모델 필요하다</li></ul>
주요 인물	汪暉(청화대, 문학,사상), 崔之元(MIT, 청화대, 경제학), 王昭光(홍콩중문대,정치), 甘陽(홍콩대, 사상) 등. 40대 후반, 50대 초반

# 비교 : 자유주의 vs 신좌파

	자유주의	신좌파
세대별 차이	문혁 전기 세대 국내파	문혁 후기 세대 유학파(해외파)
중국 현실 인식 차이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 유제로 시장 왜곡, 시장사회 아니다 중국병 + 권력병의 결합 : 중국 문제의 원인 정치의 민주화 강조 마오 시대 : 봉건주의 + 사회주의 개방과 시장화 확대 서구화, 글로벌 기준 강조	자본화, 시장화된 중국 시장을 국가가 통제 해야 서방병 + 시장병의 결합 경제 민주화 강조 마오 유산 계승한 현대화 : 마오 합리적 요소 있다 개방과 시장화 통제 필요 중국 사회주의 경험 강조
상호 비판의 내용	중국 현실을 외국의 현실과 착각하고 있다 마오 시대의 공포와 문제를 모르는 책상물림 이다 폐쇄적인 민족주의자들이다	시장 물신주의에 빠졌다 중국 부패 + 외국자본의 결합 보지 않고 있다 중국 근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져있다

# 신좌파의 대두의 영향



좌파 민족주의의 확산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 폐지  
대외 개방 축소 : 문화 개방 축소  
내수 진작 정책의 추진  
농민, 노동자 등 약세집단 정책 강화  
중국인들의 배외주의, 배타주의 정서 고양

# 신좌파 대두의 영향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재평가와 향수(?)



红色经典， 红色旅游， 新左派

# 1. 민족주의 대두 배경과 양상

	주요 내용
대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국의 '接軌'( golbalization)</li><li>• 중국 위협론과 중국 봉쇄론의 등장,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폭격</li><li>• 동유럽의 와해와 소련의 붕괴</li><li>• 경제 성장과 민족적 자신감</li><li>•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는 세대의 등장</li><li>• 서구 문화의 유입에 대한 반발과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li></ul>
사상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민족을 어떻게 응집시켜 하나로 만들 것인가의 고민</li><li>• 과거 민족주의 : 반제 반봉건, 대외적 성격. 무력 동반 , 서구에 직접적 대항성 지님</li><li>• 90년대 민족주의 : 승인과 존엄. 정체성 추구, 탈정치화된 정치, 서구 기존 질서 용인</li><li>• 정부 주도의 정치운동에서 정부, 민간의 합작품이자 방식의 다양화</li><li>• 대중 민족주의 대두</li><li>• 새로운 세대의 적극적 참여, 사이버 민족주의의 등장</li><li>• soft power 전략과의 결합</li></ul>
주요 인물	신좌파 및 중국 현실파(國情派) 지식인/자유주의 지식인의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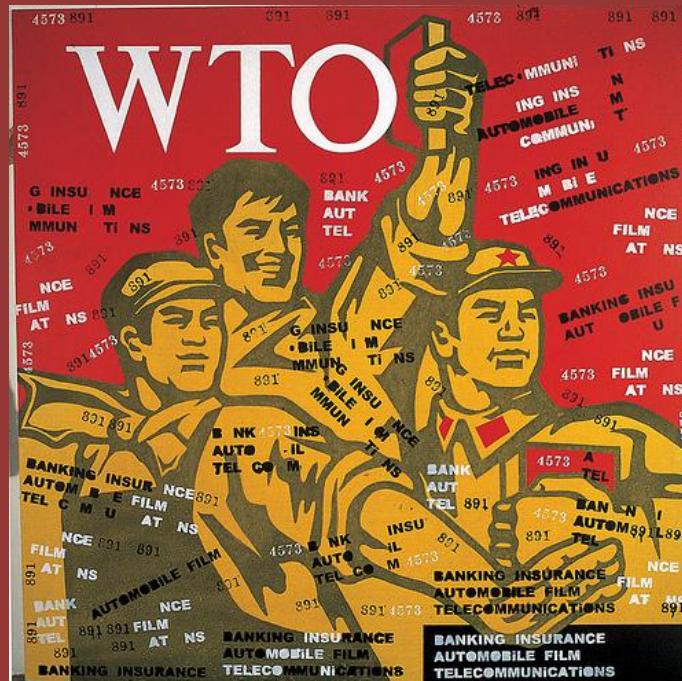
# 민족주의 논쟁

## 2. 민족주의의 세 양상

	주요 내용
정치 민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甘陽, 張旭東, 韓毓海 등</li><li>• 경제 발전으로 중국 사회 분화, 분산되었다는 인식</li><li>• 정치 과정을 통해 민족을 응집, 대중민주(mass democracy) 필요</li><li>• 대중 민주에 토대 둔 정치 건립</li></ul>
경제 민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좌파 지식인 그룹</li><li>• 지구화로 인한 시장개방의 심화</li><li>• 국내 국유 기업의 몰락, 일부 외자 기업의 노동 문제 대두</li><li>• 새로운 식민시대를 맞고 있다고 판단</li><li>• 농업의 쇠퇴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 계층별, 지역별 격차 심화에 문제 제기</li><li>• 시장 낭만주의, 자유 무역에 대한 미신 비판</li><li>• 취업우선, 자원절약, 과학기술, 교육 투자 등 주장</li></ul>
문화 민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대 중국과 80년대 (신)계몽주의 시대 반전통주의에 대한 반발</li><li>• 서구문명의 대안으로 중국문명의 가치 재발견 주장</li><li>• 전통문화를 통해 민족 통합 시도. '민족 유대 공정'</li><li>• 중국 문화의 우월성, 중국 가치의 우월성 주장</li><li>• 정부 + 민간의 합작품 : 민족문화 계승자로서의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li><li>• soft power 차원 : 중국 새로운 이미지 창조, 중국 가치와 문화를 통해 영향력 확대 추구</li></ul>

# 중국 진출의 성공 사례

## 문화적 시각





# 중국 진출의 성공 사례 (1) : Mcdonald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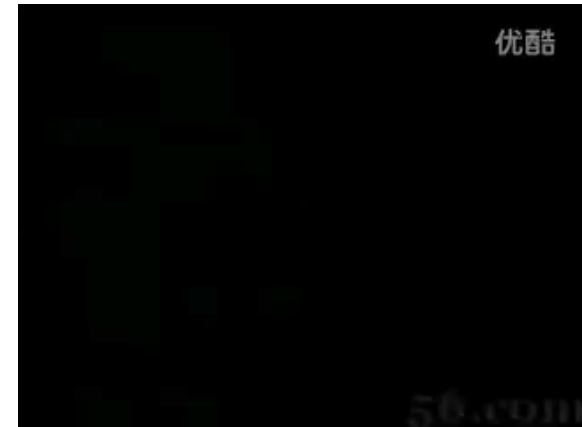
A. 맥도날드의 중국 진출 : 1992년 4월 세계 최대 맥도날드 개업, 40,000고객 운집

B. 맥도날드의 성공 비결의 한 원인 : 표준화인가 현지화인가? 현지화 선택

- 메뉴의 현지화
- 문화적 현지화 : 정서와 문화적 취향, 문화적 자존심 겨냥

C. 맥도날드 광고들

- 사회지위 편
- 낭만정서 편
- 전통풍속과 가치 편
- 어린이들의 기쁨 편



D. 맥도날드 광고와 본토 문화와 가치에 대한 포착 : 문화적 현지화의 성공

- 중국식 새로운 맥도날드 이미지 창출 : 현대 중산층의 공간, 낭만+사랑의 공간, 가족의 공간
- 90년대 이후 중국 사회, 문화의 변화 추세에 대한 민감한 포착
- 중국 전통문화와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 맥도날드가 중국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인식 제공

# 중국 진출의 성공 사례 (2) : 한류

## A. 한류의 성공 원인에 대한 해석들

- '제품'의 우수함
- 한국 민족의 문화적 특성의 우수함

## B. 한류 유행의 배경

- 1단계 한류 : 민간에서, 남쪽 지방에서 시작, HOT 등 가요 한류 : 청소년층 위주의 한류, 성인들은 거부감
- 2단계 한류 : '보고 또 보고' 등 가정 드라마 한류, 성인층으로 확대.

## C. 2단계 한류의 성공 배경

- 우수한 '제품'으로서의 한국 드라마
- 90년대 이후 중국 대중문화의 흐름에 잘 매치됨
- 전통 + 현대의 결합( 대장금의 유행, cctv가 김수현 드라마를 특히 선호한 이유).
- 일본 : 트렌디 드라마
- 한국 : 가정드라마, 혹은 트렌디와 가정 드라마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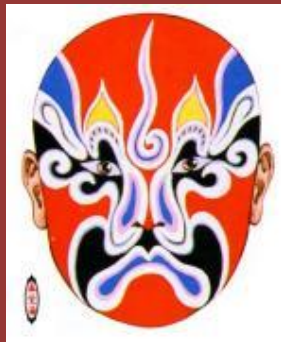
# 한류 유행의 배경: 超级女声과 大长今 (2005년 湖南卫视 制作)



# 超级女声과 大长今

- 중국판 American Idol
- 지역예선과 본선방식
- PK(Player Killed)방식
- 문자메시지(短信) 투표
- 누구나 참여
- 성공신화
- 공정한 경쟁, 민주투표, 배려와 경쟁 속에서 협력
- 문화적 상동성
- 여성스러움
- 선량, 이타심, 부드러움, 배려
- 自强不息
- 미천한 신분에서 御醫까지- 성공신화
- 새로운 여성상

# 心得中国！



## Q&A